11기 전여대협 3, 4월 사업계획 중집토론안

드림 : 11기 전여대협 중집
받음 : 전국의 여학일꾼과 여성운동단위와 관심 있는 모든 사람~!

Ⅰ 들어가며

어딜 가나 넘쳐나는 새내기들, 겨우내 움츠렸던 교정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3, 4월은 한 해 사업을 학우들과 함께 시작하는 시기로써, 3월을 잘 시작하는 것은 마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여학일꾼들에게 3, 4월은 더욱 특별합니다. 작년 선거 시기 여학우들을 찾아 교정을 누비며 다짐했던 많은 것들을 실천해야 할 때이거든요. 이번 여학생회가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을 학우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아글타글 생활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바쁘고도 바쁜 시기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할 일들이 수북이 쌓여 나중엔 에라 하기 싫어질 지도 몰라요. 여학우들이 언제나 학원 안에서 자기 삶에서 주인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는 열심히 뛰어야겠어요.
자, 이제 여학우들의 달콤 쌉싸름한 일상에 뛰어들 준비 되셨죠?^^*

Ⅱ 정세전망

전여대협에서 매주 마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신문기사로 보는 여성정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호주제 폐지 관련한 정세
- 2/28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3/2 회기 안에 안건상정이 될 예정이고 무리 없이 통과될 듯한 전망입니다. 법사위에서도 말 많았던 한나라당 꼴통 보수 의원들도 이제는 입 다물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대안 신분등록제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거친 다음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법개정안과 별개인 호적법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학우들에게 지금의 법무부의 안인 '1인 1적 가족부' 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해설도 하고,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대해서도 알려냅시다. 논의가 많이 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법무부 안이 무난히 채택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적제를 만드는 데는 어떤 안을 선택하던지 320 - 35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향후 10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호적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지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야 겠구요.
학우들의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여대협의 입장을 만들어갑시다. <전여대협 자료실 호주제 관련 교양자료 참고>

Ⅲ 목표

1. 개강사업을 진행하며 방학 동안의 활동을 학우들에게 잘 알려내고 학우만남의 정형을 만들자.

2. 학내에 모성보호의 필요성, 반성폭력담론을 형성하여 반성폭력 학칙개정투쟁의 밑거름을 만들자.
3. 1년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은 총여학생회 총노선을 대중적으로 알려내자.
4. 새내기사업을 시작하고, 학우들을 묶을 수 있는 틀을 구축하자.
5. 일꾼 교양방도와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생활을 안착화하자.

Ⅳ 대중투쟁

- 학자투쟁

: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학자투쟁 주선에서 가져가자. 반성폭력 사업이 반성폭력 학칙 개정투쟁의 흐름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반성폭력 학칙 개정

담론 형성을 위한 대중사업의 방도
- 우리학교 새터 때 성폭력이나 놀이문화를 조사하자. 조사 이후 이를 분석하고 진단한 결과를 학우들에게 발표하자. 중앙운영위, 단대운영위 등을 돌면서 간담회 겸 결과보고를 하며 과장님들을 만나자.

- 향후 단과 대학 내 모꼬지 내 성폭력 예방사업과 학칙개정에 대한 지지에 대한 입장 받기.

- 공동체 내에서의 반성폭력 내부규약 마련.
대학 별로 이 흐름을 한총련 대의원대회까지 이어서 한총련 반성폭력 내부규약도 마련해가자.

모성보호 내용으로 학자투쟁 진행

- 공약 실현, 학자투쟁에 대한 기본 진행 방향과 경과보고, 학자요구안 내용 마련하기.

- 대학 내 모성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화 : 이제 갓 대학을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있어 총여학생회에서 얘기하는 생리 휴강이나 여학생휴게실 등은 생소한 말일 것이다. 매년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죠. '왜 남학생 휴게실은 없어요? '
버려진 여학생휴게실이 몇몇 개인의 공간으로 전락하거나 관리할 사람이 없어 다른 용도로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우리 선배들이 대학 내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생리할 때 쉼을 위한 모성보호의 공간으로 마련했고 투쟁으로 쟁취한 여학생휴게실이다.
왜 여학생휴게실이 따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담론화시켜내면서 모성보호에 대해 알려내자.

- 여성학 강의 모니터링 : 대학마다 여성학 과목이 줄어들고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여성학강의 모니터링단 조직해서 수업의 질을 높여내자.

- 여성노동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성노동 박람회를 5월 1일 노동절에 한다고 상정한다면 3, 4월 학내흐름을 잘 만들어야 한다. 학교별로 노동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여서 여성노동박람회의 흐름을 만들어 가자.

<설문조사>

- 틀: 중앙에서 3월 중으로 마련
- 인원, 대상 : 학교별 2 - 4학년 여대생 100명

- 진행 일시 : 4월 한 달 진행
- 설문 내용 : 여대생들이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모성보호의 필요성...
- 용도 : 학우의식 분석, 총여학생회 차원으로 취업관련 대책 마련, 여성노동 박람회 내용 의견 수렴.
- 필요한 내용 : 여대생 실업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일꾼들의 교양을 위해 노동관련 참고자료

- 개강사업 :

개강 유인물을 통해 학우들에게 총여학생회 소개, 방학 중 총여학생회 활동 알려내기, 학우 의견수렴을 하자.

- 학교에 따라 새내기 성의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 만약 설문조사를 한다면 통크게 대대적으로 전 과까지 진행하고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자.

- 1년 사업에 대해 총노선을 학우들에게 공론화시키고 대대적으로 알려내고 의견수렴하자. 대중적인 공간에서 검증받기 : 전여대회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위는 단위별 주체가 모두 들어오는 확대운영위나 학교 전학대회 등에서 학우들에게 보고를 꼭 하도록 한다.
ex) 전체여학생대표자회의 : 단대, 과 여부장님들과 함께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총노선을 통과시킨 다음. 출범식을 진행하자.

- 대중 강연회 등에서 여성의 노동, 반성폭력 내용을 잘 풀어내자.

- 학우 조직화 방도
출범식 : 여성소모임이나 학내 여성단위와 함께 대중적으로 총여학생회를 알려내고 학우들을 만나는 자리.
여성주간 설정
대중강연회

- 3.8 세계 여성의 날

: 일꾼들의 단련, 새내기 육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도로 학교별로 다양하게 만들고 총여 출범식까지의 흐름으로 묶어내자.

의식화 내용:
- 최근 졸업식장 수석들이 전부 여자인데도 여대생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다.
- 모성보호가 되지 않는 노동현실이 출산율을 낮게 만들고 있다.
- 97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노동과 성차별 성희롱 등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리휴강이나 여학생 휴게실 등 대학 내 모성보호 필요하다.

-일상사업

화요 까페, 수요 영화제, 단대별 이동총여학생회, 차 마시기 등 각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일상사업이 모두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 일상사업의 중요성 : 매주 학내의 학우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총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유력한 방도이다. 총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학우들이 잘 모르는 학교 일수록 일상사업의 성과는 빛난다.
학우들이 직접 총여학생회 간부들을 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의견수렴의 공간을 열어준다.

ex) 까페 사업의 경우 기본 정형 :
개강이니까 각 단대를 돌면서 학우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학우들이 가장 많은 학교 거점을 설정해 놓고 그 곳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여성에게 좋은 당귀차, 쑥차 등 차 마시기,
그 날 주제에 대해 학우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백지자보나 스티커 설문,
그 주 가장 관심이 많은 여성문제에 대해 의견을 쓴 자보나 선전물.

- 반일투쟁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망언과 다케시마 조례 법안 제정에 대해 대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일 전쟁책동, 일본의 우경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묶어 의식화하자.
<전여대협 반일 투쟁지침 별도 제안 예정>

V 조직사상사업

조직운영의 안착화

- 새내기 사업과 그 지속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 여학우 새터, 교양학교, 간담회, 설문조사, 소모임 등을 통한 조직화 구도 마련
<전여대협 새내기 사업 계획 별도 등록 예정>

학우 조직화 구도 마련

일꾼들이나 학우들이 여전히 총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과의 접촉면을 많이 넓히는 수밖에 없다. 일꾼이나 학우들을 사업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운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번을 만나더라도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 학우만남의 구체적 방도와 조직기풍 마련.
서명운동 명수나 설문지 받은 개수 등 실적과 분공수행을 토대로 일꾼들의 생활을 강제하고 얼마나 많은 여학우들을 만나고 인식을 바꾸어내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자.

-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작은 사업도 주체를 정하고 작은 분공도 명확히 하는 것. 집행사업의 체계를 만드는 문제.

- 만남에 대한 후속사업을 꼭 하자.
mail주소 취합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여성관련 신문기사를 보낸다던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꼭 활용하자.

- 학습구도 정하고 학습 시~작!

바쁜 학생회 일정 속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것이 학습이다. 학습은 일꾼들의 생활 담보에 있어서도, 학우만남의 여학생운동 내용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일꾼 학습 체계 마련 : 조직생활, 학습 등 조직사상운동에서 일꾼들에게 여성운동 관련 내용이 안받침 되는 것.
- 여학일꾼 여성학 학습 시작.

11기 전여대협 총노선 중집토론안

발신: 11기 전여대협 중집
수신: 전국의 여학단위

0] 들어가며

2005년 정세는 전여대협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성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등, 법 제도적으로 여성문제가 정비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욱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문제인 비정규노동과 모성보호, 자주성 완전 실현을 위한 반미, 통일의 과제 등 더욱 더 어려운 일들에 총 매진해야 할 때다.

그에 따라 대학 내 여학생운동 연대의 중요성과 새 학생운동 실현 과제도 나서고 있다. 더욱 다양한 학우 대중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현재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조직에 묶여있지 않더라도 여학우들이 스스로의 고민이 있으면 여성단체 자원봉사나 촛불시위도 가는 것을 보면 학우들의 자주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다양해지는 여학우들의 요구에서 볼 수 있듯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가야할 길은 너무나 명확하다. 학우들 속에서 살아 숨쉬며 학우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2005년도 여학생운동의 신념 드높이 학우들을 믿고 견결히 투쟁해나가자.

1] 2005년 목표

1/ 전 대오, 전 학우 대상 의식화 교양사업의 전면화, 전체화.
2/ 단대, 과, 소모임 등의 기층 건설 활동에 중점을 두어 조직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자.
3/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투쟁성과 대중성을 확립하여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자.
4/ 대학 내 여학생운동단위의 연대를 통해 새 여학생운동 실현하자.

2] 방향

- 시기별 총화지점과 큰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시함.
-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수준별 예시나 단계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 매 시기 연대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사업을 흐름을 가지고 통 크게 추진하고 뚜렷한 성과를 남기자.

- 여성운동이론에 대해 기층과 중앙까지의 토론을 풍부히 하고 내용을 밝혀나가자.

3] 총기치(가) :

10년의 전여대협 여학생운동의 긍지 드높이
여성을 억압하는 미국, 학우들을 옥죄는 성폭력 문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높은 기세로 진행하며
대중투쟁과 교육, 조직사업에서 실질적 혁신을 이루어내어 전여대협 강화하고
여학생운동의 새 지평을 열자.

4] 주요 사업

1. 교육사업

바쁜 학생회 일정 속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것이 교육 사업이다. 운동가에게 있어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꾼 담보에 있어서도 학우만남의 내용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체계와 내용 마련.

- 일꾼 의식화 : 일꾼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체계 마련
- 학우 의식화 :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것의 내용에 대한 교양사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전의식화 골자 제출, 학우들에게 성교육, 성인식 전환을 위한 실질적 교육 사업을 위한 방도를 마련하자. (단대, 과 동아리 간담회 등의 체계화)
- 여학일꾼 : 1인 1소조 가지기, 학습제일주의를 통한 사상학습 활성화, 여성학 학습으로 실력 있는 여학생운동 전문가가 되자.

■신문기사로 보는 여성정세 제출

신문기사 하나로도 여성정세에 대한 파악고 일꾼 학우 교양이 충분하다.
매주 토론과제 제출을 통해 여학생운동 내용 생산을 위한 활기찬 토론을 진행하자.

■여성학 책, 영상을 수준별로 정리해서 제출

연대단체를 통해 활용가능한 여성학 여성내용의 강좌의 이름과 강사목록을 정리
지역, 단체별 성폭력 상담원 교육 일정을 공지

2. 조직사업

일꾼들이나 학우들이 여전히 총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과의 접촉면을 많이 넓히는 수밖에 없다. 일꾼이나 학우들을 사업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운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번을 만나더라도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사업의 주체 마련과 조직생활의 안착화

- 조직사업의 주체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 핵심을 구체적으로 챙기는 사업: 중앙에서부터 책임지는 사상학습과 토론강습회 조직, 실적보고대회 등의 체계를 마련하자. 정말 중요하다. 핵심의 유무는 곧 조직의 유무이다. 핵심들이 실무하중, 학습부재로 인해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성과를 가지지 못한 채 관성화, 정체되고 있는 현실은 곧 여학생운동의 미래가 없다는 말과도 같다.
- 생활기풍 : 여학일꾼들이 비타협적인 생활과 규율을 가져야 한다. 자기 단위에 맞는 생활 기풍에 대한 구호를 내어오자.
- 총여학생회 기층건설을 위한 조직화의 틀과 방도 마련
간담회를 통한 기층건설, 확대운영위 강화, 여성 주제 소모임 활성화 : 여학우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층건설에 대해 일꾼들이 결의를 세우는 과정이 있어야하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소모임, 집행부 뿐 아니라 편집부, 영상단, 반성폭력 지킴이 등등 총여 두리로 다종다양하고 수준이 다른 많은 사람을 묶을 수 있는 틀이 다양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중앙집행 지도 강화

- 모범 전파를 위한 <사례> 모으고 정리, 적절한 자리에서 발표회 등 모두가 공유하게 하자.
- 학교의 목표와 대학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그에 맞는 맞춤 지도

■조직확대강화

- 대의체계 확립(중상/총여학생회장단 회의/총회)
- 전여대협 이름을 걸고 벌이는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투쟁
- 여성문제 소모임 건설 : 주제, 커리, 정형을 마련하는 것.

■새시대 새학생운동 실현

- 지역별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 모임 결성
정견과 사상을 떠나 친목을 높이고, 연대의 필요성과 요구성을 높이자.
- 전국 총여회장단 회의의 범위 확대를 통한 비가입대학과의 사업 활성화, 새 여학생운동실현의 단초를 삼는다.
비가입대학의 흐름: 5/1 - 5월 한마당 - 기행 - 여름 여성강좌, 3월부터 시작하고 1차 총화지점은 5월 한마당 2차는 여성역사기행
- 5월 한마당 : 전국단위 여학생회에 5월 한마당을 대대적으로 제안
틀을 만들고 사람을 넣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고 고민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대학생이 모이는 행사를 준비하며 사전에 성폭력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함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 토론, 세미나
(대학 내 여학생운동의 발전방안, 반성폭력 학칙개정을 위한 방안 등의 토론회) 를 통한 내용생산을 중심으로 진행하자.

■대오 내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도

- 교양사업을 통해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 : 조직사상운동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안받침하는 것.
- 교양/ 사업과 투쟁 제안 및 집행/ 실천적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게 : 한총련 차원의 반성폭력 내규 마련과 반성폭력 사업 진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반성폭력 학칙개정, 생리휴강 등 학자투쟁에서 전 대오가 함께 하는 것.

3. 대중투쟁

총여학생회가 1년 단위로 교체되고 간부들이 남지 못하다 보니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매년 대중사업에만도 허덕이는 문제가 있다. 대중사업을 조직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고 이것이 전국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전여대협은 전국 대중조직의 위상을 가지고 투쟁해야한다.

■여성문제에서 이슈화시켜야 하는 투쟁에 있어 과감하게 떨쳐나서기

: 여학우 대중과 여성 민중을 책임지는 전여대협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발 빠른 투쟁대응이 핵심.
여성문제에 대한 투쟁이 필요할 때는 적은 수의 일꾼이라도 모여서 투쟁을 진행하는 정형을 만들자.
- 사업형태의 고정적 제출이 아니라 기본 골자를 정한 의식화 내용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후 학교 단위가 여학우 대중을 어떻게 만나고 활동하고 있는지 전체 전여대협 차원에서의 점검, 강제, 총화
- 다양한 요구를 가진 여학우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제의 다양한 여성운동 대중사업의 내용을 진행하자.
- 사업계획에 대한 기층의견 수렴 및 여학생운동 과제 토론 활성화

■자주통일원년사업 : 6 15 실천을 위한 남북 공준위 여성/청학본부

- 해방 60주년을 맞이해 여성의 관점으로 반미, 반일, 통일 사업을 통 크게 전개하자.
통일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스펙트럼이 다양한 이남 여성통일운동 진영을 6 15공동선언에 합의하게 만드는 임무와 역할이 전여대협에게 있다.
6 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여성본부와 청년학생본부 차원에서 <여성과 통일>내용을 만들어내고 통일에서의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정리하면서 이남 내 여성 통일운동의 질적 변화를 일구어내자.
여성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생산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통일연대 여성위원회가 공준위를 견인, 강화할 수 있게 해야한다.
- 60년 교류 사업인 여성통일대회 성사 : 교류 협력사업의 내용을 기층 여학우들 에서부터 내어 와야 한다.

■반일/'위안부'투쟁

미일 전쟁책동, 우경화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독도 망언 등 일본의 우익들이 날뛰고 있다.
6월까지 집중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 연대 서명을 받으면서 이 투쟁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가지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하는 반일 마당사업을 학교에서 진행하자.

■반성폭력 사업

- 반성폭력 학칙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전국차원의 여론 형성
반성폭력 학칙개정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반성폭력 담론화
- 강의 평가 시 성폭력 유무 문항 마련을 통해 교수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와 예방사업 진행

■모성보호의 기치를 든 학자투쟁

생리 휴강, 여학생휴게실 등 대학 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 이슈화를 해내자.

- 생리 휴강 제도화
중고교도 생리공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대가 처음 생리휴강을 시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꾸준한 의식화사업과 사업배치가 학내 분위기 형성에 주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문제가 학교 안에서 푸는 기술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무턱대고 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우들에 대한 의식화가 가장 중요하다.
- 여학생휴게실 신설 및 관리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육아보육시설 마련의 요구를 하듯이. 대학 내에 여학생휴게실이 월경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투쟁을 벌여내고 공간을 따내어야만 한다.
- 여성학 강의 : 예전에 선배들이 따내었던 성과가 후퇴되는 지점.
여성학강의 개 증설 필요, 향후 여성학 강의 필수 학점제를 만들기 위해 학우들의 의식지점을 파악하고 의식화 대

책을 마련하자.

■전여대협 핵심사업

: 5/1 여성노동 박람회, 5월 한마당, 7월 2회 여성역사기행, 11기 전여대협 총회와 10주년 기념대회, 여성문제 학습을 위한 여름 여성강좌, 여름 농활 등

■일상사업

: 학우만남 접촉면을 넓히고, 일상적 학우대중 만남을 통해 학내 총여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
대학마다 고민하고 있는 00 요일 까페 사업이나 여성의 몸에 좋은 차 마시기 등 일상사업을 통해 학우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주마다의 내용과 주제를 잘 잡고 형식을 다양화하는 것.

4. 정책국 사업

모든 사안과 사업과 투쟁을 볼 때, 여성의 관점에서 본 내용적인 제출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생산. 대학 내 모성보호에 대한 이슈화 등)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 여학생운동 주제별로 여러 명의 지혜를 동원할 수 있게 관심 있는 일꾼들이 모여서 토론을 조직한다.
여학생운동 내용을 생산하는 체계를 가지고 전여대협의 장기적 정책과 방향도 내어온다.

■정세에 맞게 교양 자료집 발간 사업과 논평사업을 일상화하자.

■신문기사의 대중적 활용과 토론 강제

5. 대외, 정보통신 사업

- 홈피 개편을 통한 여학생운동대오의 토론과 긍정적 경쟁 활성화
- 시대 요구에 맞게 중앙과 단위학교의 인터넷 사업의 혁신. 일꾼, 학우들의 메일링 꼭 활용.
- 인터뷰, 글 기고, 기자회견 등을 적절히 배치, 활용하여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중들에게 전여대협의 이름으로 쉽게 접근해야 한다.

6. 연대사업

- 상층연대에 대한 중앙에서부터 기층까지 일치성 담보
- 기층연대 활성화 방도
- 정세에 맞게 적절한 연대투쟁
- 사안별 연대(농활, 반성폭력, 조국통일)

7. 기획사업

■10주년 기념사업

10년사 정리를 해내고, 05년 안에 반드시 전여대협 백서를 발간하는 것 :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선배들을 만나고 자기 대학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잘 정리 한다.
총회를 기점으로 10주년 기념대회 진행

5] 토론과제

- 우리 학교 지난 몇 년간 여학생운동에 대한 핵심적 평가지점(성과와 혁신과제)은 무엇인가?
- 2005년 총여학생회가 학내 여학생운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1년을 끌어갈 핵심적 과제는 무엇으로 잡고 있으며 방도는 어떠한가?
- 우리 단위의 가장 긍정적인 사업방법, 작풍과 혁신해야 할 안 좋은 사업방법과 작풍은 무엇인가?
- 소모임, 과여부, 새내기 사업 중 자기 대학에서 여학우 조직화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도는 무엇인가요?
- 2005년 전여대협이 가장 중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사업과 방향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자주통일 원년, 해방 60주년 사업을 전여대협은 어떤 투쟁방향과 구호를 들면 좋을까요?
-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개정에서 학우들의 힘을 모으는 방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 최근 지역별로 모든 여학우를 포괄하는 여학생회 모임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전여대협 향후 조직전망은 어떠해야하며, 새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펼쳐가는 것이 옳겠는가?
- 전여대협 10주년 기념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RG - ~~24~~ 01

1171 / 2005

선여대협 7·8월 사업계획 토론

'35일간의 즐거운 약속'

사업계획 토론 흐름

-20일 총여회장단 회의에서 초안 토론 진행

각 학교별로 농활시기와 농활 다녀온 직후 방중사업계획에 대한 토론 진행(각 학교 의견 수렴)

-7월 둘째주 사업계획 확정안 제출

-7월 셋째주 '35일' 돌입

토론과제

-사업계획이 잘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성폭력 설문조사나 용천 돕기 모금 등등)

총여대표사이 결합이 안되어 있는데

뭔가 하나의 사업·사안에 대해서 총화·정리 없이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고.

같이 모여서 또 다른 것 해야 하고.

'하기로 했잖아, 왜 안하니?'

'됐다, 다음거 하자 ——'

사업이 분절되어 있다. 너무 1년이 훌쩍 간다.

공약이 매번 비슷하다.

-올해 정리가 안되니까 또 하고,

학우들의 요구는 높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인식이 X.

-시기별 사업이 많아 힘들고.

-학우들의 하나하나의 요구에 연연하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

체계를 세우는데 대한 고민점은.

-사업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0. 의장님 호소문

1. 정세

**민족대단합 선언문 읽어보기

정세 토론

-반성폭력 투쟁

-여성노동 투쟁

-여성통일 투쟁(이라크파병철회투쟁과 함께..)

<정세토론도움글>

✓전여대협 계획이 나오고 그에

근거해 자체 계획을 짜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2. 시기 규정

**토론과제: 이번 방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1) 학습과 실천활동, 조직생활을 통한 일꾼 단련의 시기

2) 여성역사기행을 통해 사람에 대한 조직적 성과를 남기는 시기

3) 공동선언 이행에서 여성의 몫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성통일운동을 펼쳐가는 시기

4) 상반기 평가에 근거해 하반기 투쟁을 결심하는 시기

3. 총적 목표

조국 광복 60년을 맞이하는 2005년을 준비하는 시기

동지, 조직, 조국과 함께 하는 35일간의 즐거운 약속으로

공동선언 이행에서 여성의 몫을 찾고

활기찬 여학생운동 만들어 가는 실력 있는 일꾼이 되자.

한총련 일꾼교양자료

여학생일꾼교양자료

✓연구를 했으면.

✓신문기사 활용도.

✓책 분류.

△자기 대학 여학생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총여학생회 두리에 얼마나 많은 여학우들이 모여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사업과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여가고 있는가?

위 세 가지가 상반기를 관통하는 우리들의 고민일 것이다. 지금 정세는 우리에게 100배의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35일간의 즐거운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체 여학일꾼이 학습, 실천투쟁, 조직생활에서 열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로서 하루 생활을 규율성 있게 짜게 하고 선여대협에서 제작한 수첩으로 하루하루를 총화하고 의장님이 직접 일꾼들의 생활과 활동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

☆선여대협 책읽기 운동 <방학 권장도서 선정>

릴레이식으로 책을 읽는 기풍을 마련해서 책을 추천해주고 독서왕에게 중앙에서 선물주기

☆수첩운동

<투쟁구호제출>

<여성통일사진전 등>

일괄제작

☆실천 활동

서명운동, 유인물 나누기, 학우시민 만남, 집중 실천활동

☆총화 방도: 지역여대협 방에 올리거나 지역별 일꾼모임에 선여대협 의장님 직접 총화

항상 총여학생회는 2중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여학생운동으로 인해 3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여학우들, 여성민중들이 더 자주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넘치는 자부심과,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는 든든한 자신감으로 살아간다면 못 해낼 것이 없다. 동지들과 사랑하는 총여학생회 조직, 조국에 약속하고 35일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보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여학생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4. 대중투쟁 과제

선여대협 중앙과 단위의 결심을 함께 세워 사업과 투쟁을 합의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학시기 성과를 내어 올 수 있을 것이다.

토론과제

**방중에 학우들을 책임지기 위한 총여학생회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심적으로 진행해 가야할 활동은 무엇이 있겠는가?

1) 반성폭력

반성폭력 학칙 연구 분석, 전국적 차원의 공동행동 준비

2) 여성실업

여대생 실업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내면서 투쟁 결합(8월경 여대생 실업대책위 결성 준비)

3) 여성과 통일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파병철회 집중 실천투쟁)

8월 초 구별 통일 한마당, 지역 여성통일 한마당, 북녘유적답사

8/13 여성과 통일에 대한 토론회: 2005년 광복 60돌을 맞아서 남북여성통일운동기구 상설화를 꾀하면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차원에서 함께 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8/14 정대협 수요시위에서의 평화한마당

8/15 여성통일한마당

민족공동행사 중 잠깐 비는 시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통일 실천을 모아 가는 흐름에서 여성통일한마당을 준비하자.

8월 말, 9월 초 남북여성통일대회 진행

**토론과제: 선여대협 통일선봉대 결성에 대한 의견 <전체통선대 교양 내용에 여성과 통일내용 넣기>

-역량이 부족하다면 함께 없으면서 더 고민을 늘일 수 있겠다.

-여학단위에 맞는 사업내용을 더 구체화.

영역별 과제

기활을 통한 반성매매 투쟁

평화한마당, 기념관 건립 사업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국보법 철폐투쟁

5. 핵심사업

1) 한총련 여름일꾼 전진대회 + 선여대협 수련회:

5월 한마당에서 확인했듯이 여성운동을 알고 싶어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접할 기회가 없어서이지 인식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핵심들이 여학생운동을 새로이 바라보고 여성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자.

-일꾼 설문조사 진행

-한총련과의 논의 속에 여성학 강연을 배치하는 방식으로의 결합고민

성폭력, 성매매·동성애 똑같은 일반교양으로

선진대회의 1박 2일 기간동안 선여대협 수련회 진행

-참가대상: 새내기를 제외한 일꾼들

((여중생, Fuck女 등 제기했는데

학생의 안되는 부분 포함해서

-상: 상반기를 평가하고 선일적으로 방중사업계획을 합의하면서 하반기 결심을 세우는 자리
여학생운동 핵심과제에 대한 토론 진행, '35일간의 즐거운 약속' 결의대회 진행

2) 여성역사기행:
총여학생회 두리로 여학우들을 묶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업이다. 기행을 통해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많은 대책들을 함께 고민해가자.

6. 조직사상 사업계획

7. 시기별 흐름
~7/11 준비기
전여대협 사업계획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자기 대학 총여학생회의 방중 계획을 내어온다. 일꾼별 자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방중 투쟁 결심을 세우는 시기
■학교별 총여학생회 일꾼 결의대회
■일꾼 전진대회, 전여대협 수련회
■농활 여성농민반 평가 및 후속활동 진행

~7/18 '35일' 돌입기
'35일' 에 들어가서 학습, 조직생활,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자
■7/17 10만 범국민대회

~7/29 '35일' 심화기
■7/27 정전협정 체결일

~8/4 여성역사기행 시기

~8/15 민족공동행사, 여성과 통일 토론회 준비
■토론회, 여성통일한마당 준비
■여성과 통일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 진행

8. 일정
7/9~11 한총련 여름일꾼 전진대회
7/17 이라크 파병 철회, 한국군 철수를 위한 10만 범국민대회
7/23 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 전국농민대표자대회
7/30~8/4 1회 여성역사기행
8/13 전국대학생 COREA통일축전
8/14 평화한마당
8/15 여성과 통일에 대한 토론회, 민족공동행사, 여성통일한마당,

1회 여성 역사 기행 사업 계획 초안

** 토론과제
여성역사기행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행에서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부분

1) 의식화 대책
내용
기행 일시, 내용 알림 선전
기행이 가지는 의미
강인하고 주체적이었던 여성인물들에 대한 선전

[인물에 대한선전, 스티커설문, 인터넷선전
[" 의식화자료·방도제출필요
여성의역사를 다시 쓰는 것에 대한 의미.
교양자료 제출.

방도
기말고사, 계절학기 등을 계기로 한 무작위 대중에 대한 선전
여학생휴게실 참가신청서 배치
웹자보, 게시판, 과단대 까페, 총여 까페 선전
도서관, 식당, 과방, 휴게실 등 학내 곳곳에 포스터 부착

2) 조직화 대책
과 여학생부장, 소모임 구성원, 여학생운동에 관심 있는 일꾼, 상반기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으로 묶였던 우호대중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화 진행
선전으로 무작위 대중에 대한 조직화 진행

3) 일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제
-사전교양을 꼭 진행하자.
-학교별 분공을 정확히 집행하자.
-학교 참가자 모임을 내용성 있게 준비하자.
-조장을 잘 세우자.

4) 준비 흐름
~ 6월 말까지
중앙: 기행 지도사업, 사전답사(여름농활중으로 고민), 세부 기획안 완성
강사, 교통편, 숙소 섭외, 체계구성(단장, 실무단)
단위: 여성역사기행의 의의 토론, 자기 학교 의조직화 목표 설정
주체(조장) 선출, 1차 참가자 모임 진행

~ 7월 둘째주
중앙: 조장모임 진행
학교별 분공 정하기, 회비 걷기
단위: 강연, 세미나 등 학교별 분공을 총여에서 논의

~ 7월 셋째주
중앙 : 재정으로 물품구입, 언론 취재 요청, 조장회의 진행
자료집 준비, 참가자 확정
단위: 2차 참가자 모임진행, 강연, 세미나 등 학교 분공 참가자들과 준비

~ 7월 기행주까지
중앙: 실무점검

5) 후속활동
자료집, 비디오, 사진써니 제작
기행참가자 한번길성
기행 후기 공모사업
[책자제작] ?